초기 근대건축에서의 근대성의 의미 및 전통의 역할

— 베를라헤의 '진화하는 역사성'에 대한 소고 —

任奭宰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1. 서론 : 베를라헤와 근대건축

헨드릭 페트루스 베를라헤(Hendrik Petrus Berlage)는 19세기말엣서 20세기초에 걸친 초기 근대건축의 서막을 연 건축가들 중의 한 사람이다. 이 시기의 건축은 1세기 이상 계속되어 온 역사주의(Historicism)와 여기에 반발하는 신건축운동(New Architecture)의 두 갈래로 양분되어 있었다. 근대 건축운동의 전성을 겪고 난 1930~1960년대의 시점에서 볼 때, 19세기말 건축에 있어서의 역사주의란 빨리 극복되고 사라져 버려야 할 구시대의 마지막 양식 정도로 여겨졌었다. 실제로 30년대~60년대에 쓰여진 많은 양의 근대건축사 책에서는 신 건축운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결국 역사주의에 대한 언급이란 어떻게 역사주의가 신 건축운동에 의하여 거부되고 패배하게 되었는가가 전부일 정도였다. 그러나 실은 역사주의에 대한 이러한 일방적인 관점은 근대건축운동 내에서도 국제주의 양식이라는 한 극단적인 분파의 관점일 뿐 근대건축운동에 있어서 역사 내지는 전통의 의미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는 것이다. 더욱이, 과거 양식의 직설적 복사라는 부정적 측면을 갖는 형태 결과물로서의 역사주의 양식과 정신사적 의미에서의 전통 혹은 고전이라는 개념과는 엄밀히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근대건축에 —— 특히 초기 근대건축에 —— 있어서 전통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는 크게2가지 사실에 기인한다.

첫째는 실제 지어지는 건물 수에 있어서 신 건축운동이 꽤 무르익었던 20세기초까지만 해도 역사주의 양식의 건물이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다는 데에 있다. 이 시기의 역사주의 건축가들이 한동안 건축사 책에서 사라지고, 그저 그렇고 그런 복사품을 찍어내던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집단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건축사를 너무 진보적으로 본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건축사 연구에 있어서 한 양식이 좋다 나쁘다의 직설적인 판단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것보다는 그 양식이 왜 좋고 나쁜가에 대한 판단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역사주의 양식에 대한 위와같은 단가적인 결론은 판단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너무 성급히 내린 결론 일 수 잇다. 여태까지 서양 근대건축사 연구는 대부분 이와같은 진보적 사관에 의해 주도

되어 왔었고 이제 그것에 대한 보완·수정의 사관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양 근대건축에서 전통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는 그 중의 한 핵심적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상당기간 동안 실제로 지어진 많은 수의 건물들을 주도했던 역사주의가 갖는 존재성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만 평가한 것은 조금 성급한 결론이었을 수 있다. 이것은 일반 정치·문화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부끄럽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지배체제가 존재했다 해도 그 지배체제가 일정기간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또 그 여파가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존재성을 갖는다면 거기에 대한 무조건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적 평가 이상의 신중하고 다양한 사적 해석작업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 근대 건축운동에 있어서 전통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이 성급한 결론이었다는 사실은 근대건축에 대한 반성이 복고주의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데에서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탈근대 건축자체도 이제는 여러 다양한 시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1960년대말의 초창기 탈근대 건축은 분명 근대건축이 전통에 대해 내린 성급한 비판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지닌 전통 재평가작업이었다. 이제 그러하 재평가작업이 20년 이상 계속되면서 그 주된 방향은 초기 근대건축에 대한 연구쪽으로 모아지는 느낌이다. 70~80년대를 거치면서 초기 근대건축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축적은 실로 방대한 양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관점은 대부분 근대건축과 전통과의 관계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신중하고 다양한 해석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바로 이 초기 근대건축 시기에 탈근대 건축에의 모델이 될 만한 전통에 대한 다양하고 포용적인 재해석운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가 베를라헤가 속하는 시기로서,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여겼던 일단의 초기 근대건축의 개척자들은 전통을 '거부'한다고 천명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이들의 '거부'는 1925년 이후의 국제주의 양식에 의한 '진짜 거부'와는 오히려 상반된다고 느껴질 정도로 전통에 대해 포용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었다. 주요 근대 건축사가들은 초기 근대건축가들의 위와 같은 '거부아닌 거부'를 대체적으로 국제주의 양식의 전신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것은 건축사를 너무 연대기순에 의한 순차적인 개념으로 본 것이거나 아니면 과학기술사나 일반문화사의 연대기에 건축사를 맞춘것 일 수 있다. 실제로 국제주의 양식 신봉자들은 초기 근대건축가들의 전통에 대한 포용적인 입장마저도 거부되어야 할 전근대적 잔재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농후했었음을 볼 때 초기근대건축운동을 아방가르드의 서곡으로만 결론짓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이들 초기 근대건축가들에게 있어서 전통은 분명 비판되어야 할 대상임에는 틀림없었지만 그것은 완전거부가 아닌 재해석적 변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제주의 양식의 번창은 바로 이러한 초기 근대건축의 전통관의 쇠퇴를 의미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때, 근대건축에 있어서 전통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으려는 역사주의와 이것을 거부한 신 건축운동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보는 것 보다는 여기에 덧붙여 전통의 비판적 재해석을 통한 변형의 시도까지 포함하는 3분법의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동안 이 3번째 입장에 대해 정당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채 국제주의 양식을 준비하는 과도기 정도로 취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초기 근대건축의 이 3번째 입장은 분명 국제주의 양식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이상적 목표를 갖는 독립된 운동이었다. 이런 점에서 역사주의의 극단에 반대되는 또 다른 극단을 낳은 국제주의 양식에 대한 반성이 곧 바로 초기 근대건축의 전통에 대한 위와 같은 입장을 재평가 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초기 근대 건축가들의 전통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적 재해석 입장은 그 내부적으로 다시 몇 가지의 경향으로 세분될 수 있다. 첫째는 역사주의 건축의 문제점을 부패한 귀족 지배계층의 지적유희의 산물로 보고 건전한 중산층의 수공예에 의한 순수성 회복을 그 대안으로 내세운 수공예 운동이

고, 둘째는 역사주의 건축의 문제점을 양식(style)의 정체성으로 보고 이와 같은 유럽의 전통적인 양식에의 집착에 대한 대안으로 장식을 내세운 아르누보 계열의 운동이고, 셋째는 합리적 해석방식에 의거한 역사적 건축양식의 단순화 운동, 혹은 좀 더 극단적인 예로 단순 기하형태로의 분해운동이고, 넷째는 신구조의 새로운 건축적 표현능력에 대한 실험적 운동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들은 상호간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함께 생각되어져야 하는 측면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근대건축을 다룬 건축사가들은 가능한한 초기 근대건축가들을 위의 어느 한 구분밑에 분류해 넣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베를라헤는 앙리 반 데 벨데와 함께 위의 어느 한 가지 경향밑으로 분류되지 않고 4가지의 경향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을 지닌다.[1] 이러한 포괄적 경향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앙리 반 데 벨데의 경우 변신에 능한 개인적 욕심탓으로 이해되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베를라헤의 포괄적 특징은 자기의 조국인 네덜란드가 처한 건축적 상황에 가장 많이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베를라헤는 이러한 포괄적 경향 때문에 아르누보를 다루는 책, 수공예운동을 다룬 책, 신구조 운동을 다룬 책 등등에 모두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그의 포괄적 경향을 이해 못한다면 어느 책을 접했느냐에 따라 베를라헤를 단순한 아르누보 건축가, 혹은 수공예운동 건축가, 혹은 국제주의 양식을 태동시킨 건축가 등 어느 한 가지의 경향만을 추구한 건축가로 오해하기 쉬운 위험이 있는 것이다.

베를라헤의 포괄적 경향의 특징은 한 마디로 몇 가지 양극적 대립 개념들의 합일화 노력에 있다. 이를 위해 베를라헤는 많은 양의 저술을 남기고 있으며 그 사상적 맥은 젬퍼(Semper), 헤겔(Hegel) 및 비올레 르 뒥(Viollet-le-Duc)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이들의 생각을 추종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시대의 이상적 건축사상 모델로 '총체적 통일성(Unity within Diversity)'[2]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건축사상을 실제 건물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건축어휘로서 베를라헤가 생각했던 이상적 가치는 '형태미에 의한 공간창조'였다. 베를라헤 연구에 있어서 또다른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그의 조국이었던 네덜란드가 갖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며 여기에 기인한 미국 건축과의 상호영향 또는 잊어서는 안될 내용이다. 본 논고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능한 연구주제 중에서 베를라헤의 주요 저술을 중심으로 그의 건축사상을 '역사성'이란 관점에서 관찰해 보고자 한다.

2. 이상적 전형으로서의 총체적 통일성 (Unity within Diversity)

베를라헤의 건축사상은 건축양식도 자연의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진화한다는 전통적인 양식진화론(style evolution)에서 출발한다. 양식진화론은 바사리(Vasari)에 의해 제기된 이래 19세기 독일의 이상주의 철학에서 전성을 이루었고, 건축에서는 젬퍼와 비올레 르 뒥에 의해 정리되어 근대건축의 중요한 사상적 동인이 되었다. 베를라헤는 츄리히 유학시절 젬퍼의 건축이론과 독일 이상주의 철학을 접하였고,[3] 비올레 르 뒥의 이

1) 연대기에 따른 傳記的 관점에서 베를라헤의 다양한 건축경향과 그 당시의 급변하는 건축사조에 관한 소개로는, Hermann van Bergeijk, *Hendrik Pertrus Berlage, Architettura urbanistica estetica* (Bologna, Italy : Zanichelli Editore, 1985).

2) 이 주제에 관한 베를라헤의 건축론은 본 논고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려니와, 이 주제를 베를라헤의 실제건물과 관련지어 소개한 짤막한 article로, Giovanni Fanelli, "Unity within Diversity, The architecture of Berlage" in *Hendrik Petrus Berlage*, Complete Works (New York : Rizzoli, 1988).

3) 젬퍼의 양식진화론과 독일 이상주의 자연철학에 관한 내용및 이 주제에 관련된 주요문헌의 소개는, 임 석재, "19세기 건축과 독일 이상주의 자연철학-Semper의 양식발달론과 자연해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1993년 6월호), pp. 49-57; 베를라헤가 츄리히 유학시절 젬퍼및 독일이상주의 자연철학을 접하게 된 내용에 대한 소개는, Pieter Singelenberg, *H.*

론은 그 당시 넓게 퍼져있던 아르누보 건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어권 건축이론가들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4]

젬퍼와 비올레 르 뒥의 이론은 다소 차이가 있고 두 이론가 사이의 관계문제 자체도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긴 하지만 본 논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베를하헤의 이론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를라헤의 양식진화론은 '전형 —— 변형'의 2분법적 구조를 이룬다.[5] '전형'이란 건축의 성립 근거를 이루는 불변의 유무형 요소들로, '자연환경으로 부터의 보호'라는 제1명제에서 출발한 '가린다 —— shelter ——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범세계적인 구조물로서의 4각형' 등의 일련의 요소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축조'라는 제2명제와 관련된 '재료 —— 諸축조기술들 —— 실용성·기능성' 등의 요소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전형'의 요소들이 '변형'의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가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예술성을 갖게 되고 시대상을 반영하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건축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6] 여기서 예술성이란 바로 '건축적 심미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쁘다', '눈에 보기좋다'는 의미에서의 심미성이 아니고 건축고유의 표현모드(mode)를 통해 건축고유의 가치를 얼마나 충실히 나타내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베를라헤는 건축적 심미성의 요소로 창, 오더, 벽, 천정, 지붕 등의 기본요소를 다루는 처리기법인 빛, 색체, 장식, 공간감, 형태성, 볼륨 등을 들고 있다. 물론 이중 색체·장식 등은 다분히 화학적 혹은 시각적 즐거움의 개념을 띠고 있긴 하지만 색체 및 장식처리에 의한 건축적 심미성의 판단기준은 화화적 의미에서의 시각적 즐거움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건축의 '전형'적 요소인 축조성 혹은 구조적 측면과 어느 정도 일체성을 가지면서 그러한 축조적의미가 표현되었느냐가 판단기준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처리기법들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한 시대, 한 지역의 건축적 가치관, 기술·산업수준, 사회적 가치관, 경제·정치상황 등의 시대정신이 반영된다고 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건축에서의 '전형'적 요소와 '변형'적 요소 사이의 일체감이 베를라헤가 꿈꾸었던 이상적 전형으로서의 '총체적 통일성(Unity within Diversity)'인 것이며, 이것이 잘 구현된 이상적 예로 헬레니즘건축과 고딕건축을 들었고 이 둘의 바탕에는 자연의 교훈이 깔려 있다고 보았다. 헬레니즘 건축과 고딕건축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사관은, 우선은 결과물로서의 외적형태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러한 형태로의 생성법칙이 전자는 'external'[7]하고 후자는 'internal'하다고 보는

P. Berlage : *Idea and Style* (Utrecht, Netherlands : Haentjens Dekher & Gumbert, 1972), pp. 5-21.

4) 베를라헤에 대한 비올레 르 뒥의 영향은, ibid, pp. 189-192; Richard Padovan, "Building towards an Ideal : Progressive Architecture in Holland", in *Art Nouveau Architecture*, ed. Frank Russell (New York : Arch Cape Press, 1997), pp. 138-141; 비올레 르 뒥의 양식진화론은 그의 역작 "Entretiens"중 중세고딕건축의 여러부재에 관한 설명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내용및 비올레 르 뒥의 방대한 양의 저술 중 이 주제와 관련하여 주제별로 재 정리한 책으로, Philippe Boudon et Philippe Deshayes, *Viollet-le-Duc, Le Dictionnaire d'architecture* (Bruxelles : Pierre Mardage, 1979); 이 주제에 관한 비올레 르 뒥 자신의 article로는 "La question de l'architecture moderne" in *L'Eclecticisme Raisonne*, choix de textes et preface de Bruno Foucart (Paris : Denoel, 1984); 이 주제를 다룬 연구중 잘 된것으로는, Pol Abraham, *Viollet-le Duc et le Rationalisme Medieval* (Paris : Vincent, Freal & C., 1974).

5) 이 내용은 베를라헤의 다음의 글에서 주로 주장 되었다. : H. P. Berlage, *Schoonheid in samenleving* (Rotterdam, 1919).

6) H. P. Berlage, *Gedanken uber Stil in der Baukunst* (Leipzig, 1905).

7) 고전주의 건축의 특징으로서 형태의 생성법칙이 'external'하다는 의미는 초기조건적 절대성을 갖는 법칙이 먼저 존재하고 형태는 그 법칙의 지배를 받는

개념위에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베를라헤는 이와같은 상반된 두 양식사이의 공통점으로서 '심미적 완결성(aesthetic perfection)을 찾아 냈으며, 자연의 유기성이 주는 교훈을 그 이상적 모델로 삼은것 역시 베를라헤가 관찰했던 두 양식사이의 공통점인 것이다.

위와 같이 베를라헤의 양식진화론은 여러 서양건축 사상을 혼합한 포괄적 성격을 갖는다. 첫째, 건축의 구성단계를 기능적 측면과 심미적 측면으로 2분하고 기능적 측면에 축조성을 포함시킨 것은 비트루비우스(Virtrurius)의 3분법인 '기능——테크놀로지——심미'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8] 둘째, 기능적 측면과 심미적 측면 중에서 심미적 측면을 우위로 둔 것은 전통적인 고전주의 표현미학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겠다.[9] 셋째, 그러나 심미적 측면의 개념적 가치에 절대적 가치를 매기지 않고 구조적 측면과의 일체감을 주장한 것은 클라우드 뻬롤(Claude Perrault)의 과학적 합리주의,[10] 크리스토퍼 렌(Christopher Wren)의 과학적 상대주의,[11] 그리고 이 둘을 포함하는 낭만주의 및 이것의 이상적 모델로서 비올레 르 둑이 제시했던 '중세건축의 구조미학(Civil Gothic)'[12] 등의 기본개념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총체적 통일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양자 사이의 취합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넷째, 건축의 근원적 의미로서의 '전형'적 요소에 'shelter'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이것은 변형과정에 사회상이 반영된다고 본 것은 젬퍼의 '근원——진화' 이론의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13] 그리고 그 이상적 예로 헬레니즘 건축을 든 것은 역시 젬퍼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14], 동시에 고딕건축을 그 예로 든 것은 비올레 르 둑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 둘의 바탕에 자연의 교훈이 있다는 관점은 독일 이상주의 자연철학의 영향을 받은

다는 의미이며 'opaque'라는 단어와 동의어이다. 반면, 중세 고딕건축, 혹은 낭만주의 예술의 특징으로서 형태의 생성법칙이 'internal'하다는 의미는, 형태생성의 결정요소가 그때그때의 주어진 조건들에 따라 이 조건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생겨나는 것이지 초기조건적 법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서 'transparent'와 동의어이다. 근대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철학은 바로 고전건축이 갖는 위와 같은 'opacity'를 깨고 그것에 반대되는 낭만주의 사조의 '자율성'의 의미로써의 'transparence'를 획득하려는 시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것은 근대건축의 완성자중의 한 사람인 Le Corbusier의 건축에 가장 많이 덧 붙여지는 수식어가 'transparent'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 18~19세기의 근대여명기 예술사에 있어서의 전환기적 의미로써 형태 생성법칙이 'opaque'한 경향에서 'transparent'한 경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근대예술의 기본배경으로 다룬 명저로, Philippe Junod, *Transparence et Opacite* (Lausanne : Editions L'Age D'Homme, 1976).

8) Vitruvius,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9) 이 내용은 미학사, 미학개론 그리고 고전주의 미학을 다룬 연구에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제이다. 그 중, 근대미학과 관련하여 이 주제를 고전주의 표현미학의 구체적인 표현기법들인 'humanite', 'grace', 'gout'…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다룬 책으로, Leon Bopp, *Philosophie de l'Art ou Alchimie contre Histoire, Essai de surhistoire des valeures esthetiques* (Paris : Gallimard, 1954).

10) Claude Perrault이 근대건축의 형성에 기여한 내용은 여러주제로 분류되어 생각될 수 있고, 이 점에서 Perrault은 초기 근대건축을 다루는 모든 주요 건축사가들의 주요 연구대상이었다. 이 중 Perrault을 과학적 합리주의란 주제와 연관시켜 연구한 대표적 내용은 Joseph Rykwret계열의 건축사가들이 했던 연구라 할 수 있다. : Joseph Rykwret, "Positive and Arbitrary" & "Truth stripped naked by philosophy" in *The First Moderns, the architects of the eighteeth century*, (Cambridge, MA. : The Mit Press, 1987), pp. 23-53. 415-506.

11) Christopher Wren의 과학적 상대주의와 내용및 근대건축에의 기여를 다룬 대표작으로, J. A. Bennett, *The mathematical science of Christopher Wren*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12) 註2 참조.

13) Gottfried Semper, *Theorie des Formell-Schonen* (1849).

14) H. P. Berlage, "Gottfried Semper" in *Architectura* (1903).

것이다. 다섯째, 건축의 구성단계를 기능적 측면과 심미적 측면으로 2분하고 심미적 측면의 처리기법에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양자 사이의 취합을 통한 장식의 개념을 넣은 것은 헤겔의 4단계 양식발전론인 '형성기(primitive phase) —— 전성기(austere style) —— 이상기(ideal style) —— 細化期(gracegul style)'[15]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베를라헤 건축사상의 기본개념을 이루는 '총체적 통일성(Unity within Diversity)'은 위와 같이 대단히 복합적인 건축사상사적 배경위에서 베를라헤가 자신이 처한 초기 근대건축에의 이상적 건축사상으로 주장한 것이었다. 베를라헤는 초기 근대건축가들 중에서도 특히 철학적 고민을 많이 한 건축가였으며 그 배경에는 예술가들 사이에 철학적 고민의 경향을 한 특징으로 갖는 네덜란드의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총체적 통일성'의 기본개념은 건축의 가치표현에는 어떠한 초기조건적 법칙도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한 판단기준으로는 한 건물이 처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른 주어진 여러 조건들을 얼마나 충실히 만족시켰느냐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자연형태가 갖는 '생성력과 형태사이의 유기성'을 들었다. 즉, 예를 들어 한 나뭇잎이 아름다운 것은 그 형태가 눈에 보기좋은 곡선형을 이룬다거나 나뭇잎의 녹색이 눈에 보기좋거나 하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 곡선형과 녹색이 지구의 기압·습도·태양광선 등의 조건 하에서 최고의 생명효율을 내기 위한 최상의 만족도를 갖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형태의 외양에 관한 시각적 즐거움의 기준이 바로 베를라헤가 거부했던 역사주의 양식의 초기조건적 가치기준이라면, 최고의 생성력을 위한 유기성의 결과로서 생겨난 나뭇잎의 형태및 색깔이 베를라헤가 이상적 전형으로 제시한 구조체와 표현요소 사이의 총체적 통일성에 해당되는 개념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언뜻 모두 같아 보이는 한 나무의 그 수많은 나뭇잎들이 실은 모두 서로 다른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나뭇잎도 서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칭적으로 '나뭇잎'이라는 총체성을 대표하는 공통요소인 곡선형·녹색이 '전형'의 개념에 해당된다면 여러 다른 주어진 조건하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실체로서의 다양한 형태들은 '변형'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건축에서의 예를 들면, '대칭'이라는 개념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지켜져야 하지만, 그것이 고전건축에서 처럼 초기조건적 절대성을 갖고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조적 효율성을 포기하고 필요 이상의 부재를 사용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잘못인 것이다. 우선 주어진 조건 하에서 '전형'적 요소인 구조성, 기능성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대칭'이라는 개념적 가치를 추구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위한 '대칭'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좌우동형적 대칭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좌우간의 내재적 균형의 개념으로서 평형(equilibrium)상태에 도달하면 되는 것이다. 즉, '대칭'이라는 기본개념은 지키면서 그 의미를 '좌우동형'이라는 절대성에서 '주어진 구조 역학적 상황하에서의 평형'이라는 상대적 조건만족으로 바꾼 예가 바로 베를라헤가 자기시대의 이상적 건축사상으로 제시한 '총체적 통일성(unity within Diversity)'의 한 예인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목재를 재료로 쓰면서 '곡선'이라는 초기조건적 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목재를 구부렸다면 그것은 '목재'라는 주어진 조건을 초기조건적 가치를 위해 희생시킨 것이므로 올바른 사용법이 아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목재'의 기본특성은 구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架構式 구조방식에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총체적 통일성의 개념이 재료의 경우에 적용이 되면 그것은 재료의 '솔직성(honesty)'이라는 주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연의 유기성 해석을 바탕으로 한 건축의 구조성과 표현성의 일체는 서로 반대입장에 선 것으로 이해되는 젬퍼와 비올레 르 뒥을 이어주는 공통의 끈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불어권 아르누보 건

15) G.W.F. Hegel, *Vorlesungen uber die Asthetik* (1842).

축의 기본사상을 이루고 있다. 특히 재료의 솔직성문제는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나 아돌프 로스(Adolf Loos)의 건축사상에 있어서 주요한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점이 바로 유럽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네덜란드가 미국 근대건축과의 교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총체적 통일성'이라는 주제는 건축의 스케일 변화에 따른 어휘구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한 건물내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른 건축어휘가 아주 세부적인 부재에서부터 전체적인 모양, 그리고 이것을 위한 기본개념·표현기법 등에까지 공통으로 형성되어야 좋은 건물인 것이다. 나아가 역시 한 건물내에서 '식기·포크 등의 일상용품 —— 가구 —— 실내장식 —— 건물'에 이르는 생활예술 사이에도 스케일의 변화에 따라 한 가지 디자인 어휘가 변화하면서 공통으로 창조될 때, 즉 '총체적 통일성'이 존재할 때 이것이 바로 중산서민계급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근대건축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베를라헤보다는 수공예운동 건축가들이나 빅토로 오르타(Victor Horta)에 의해서 기본사상으로 주장된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베를라헤도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16] 이것은 18세기 불란서 고전미학에 근간을 둔 'decorum'혹은 'Natural propriety'라는 개념을[17] 바탕으로 갖는다. 이 개념 역시 자연의 유기성 해석에서 나온 것으로, 장미의 꽃이 예쁘고 백합의 잎이 예쁘다고 해서 장미꽃과 배합잎을 합쳐 놓으면 더 예쁜 꽃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장미꽃과 장미잎이 예쁘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다른 꽃과의 시각적 형태비교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장미라는 식물에는 장미꽃과 장미잎이 서로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자연의 유기성'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A〕라는 건물에는 그 건물의 특성에 가장 잘 맞는 〔A′〕라는 가구와 〔A″〕라는 실내장식까지도 함께 설계할 의무를 건축가들은 갖는 것이다. 〔A〕라는 건물이 예쁘고 〔B〕라는 가구가 예쁘다고 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A와B를 합쳐놓은 것은 건축가의 무책임한 도덕적 회피라고 본 것이다. 이점은 아르누보 건축과 수공예 건축운동사이에 존재하는 공동의 끈이기도 한것으로서, 역사주의 건축의 문제점을 부패한 귀족지배 계층의 표상적 유희를 위해 봉사한 건축가들의 부도덕성으로 정의하고 그 대안으로써 건전한 생활예술의 구현을 위한 건축가들의 도덕성 회복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3. 베를라헤에 있어서의 전통과 근대성

자신의 이상적 건축모델로 '총체적 통일성'이라는 개념을 추구했던 베를라헤의 고민은 과연 우리 시대에 맞는 건축은 무엇이냐의 문제였다. 그가 주장했던 '총체적 통일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신의 시대에 대한 이상형 제시같은 성격을 띠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 그 내용이 상당부분 일반론적인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에 베를라헤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

베를라헤의 많은 글들은 시대비판을 하면서 이상적 건축모델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꼭 근대건축의 해답이라는 시대창조적(epoch making)인 응변은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얘기한 베를라헤의 포괄적 경향은 반대로 얘기하면 자신만의 한 가지 주장을 형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의 표출일 수도 있는 것이다. 베를라헤는 그 당시 주장되던 거의 모든 초기근대 건축이론을 함

16) 최근에 이 주제하에 열렸던 베를라헤에 대한 전시회 및 세미나는 재미있는 내용들을 담고있다. 그 구체적인 언급은 본 논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Disegni Tekeningen : Hendrik Petrus Berlage*, Biennale di Venezia 1986 (Amsterdam, Nederlands : Rijksdienst Beeldende Kunst, 1986).

17) Remy G. Saisselin, "Bienseance or Decorum" in *The Rule of Reason and the Ruses of the Heart* (Cleveand, Ohio : The Press of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70), pp. 47-49; Seockjae YIM, "Architectural Propriety and Noble Simplicity" in "Imitation and Ideal Type : A study of eighteeth century french architecture", Ph. 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2), pp. 126-135.

께 주장했으며 그것의 사상적 바탕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상당히 복합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를라헤 자신, 혹은 자기세대가 처한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즉, 시기적으로 자기세대에서는 근대건축의 이상적 모델이 완성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한 가지 주장만을 제시하는 것은 극단화의 위험을 내포함으로 자기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다음세대를 위한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1886년 이후 발표된 몇 개의 글에서[18] 베를라헤는 역사주의 건축과 신건축운동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그의 역사주의 양식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절대주의에 의한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그는 동시대의 일부 신건축운동 건축가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역사주의 양식의 존재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전통과 근대를 구분짓는 마지막 경계선인 건축에서의 개념적·심미적 가치의 존재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는 전통의 입장에 섰던 것이다. 그가 비판했던 것은 아무 의미없이 복사되는 역사주의 양식의 정체성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결국 올바른 건축행위가 무엇이냐는 가장 기본적인 물음으로 환원되었고 여기에 대한 자신의 해답이랄 수 있는 '총체적 통일성'이라는 건축관을 형성하여 가면서, 건축에서의 역사적 반복성은 결국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는 특성임을 인식하고 그 나아갈 방향으로 '진화하는 역사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베를하헤는 그 당시의 신건축운동이 역사성을 전면 부정하는 또 다른 극단성의 경향을 띠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근대건축의 해답이다'라는 단언적 주장은 평생 못하고 말았다. 이것이 앞서 얘기한 자기시대의 한계적 상황의 인식 때문이었다면 역사주의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가능한 모델을 제시한 그의 태도는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신이 그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흐르던 신건축운동의 경향에 대해 이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비판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었을 수 있다. 베를라헤가 보여주는 절충주의적 경향은, 전통을 극복은 해야겠지만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건축의 본질상, 일종의 전통양식의 지배를 통한 이상향 건립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다소 센티멘탈한 자기한계 인식이었을 수 있는 것이다.

베를라헤가 근대성의 개념으로 제시했던 '진화하는 역사성'의 핵심 내용은 바로 앞에서 설명한 '총체적 통일성'의 법칙하에 역사적 양식을 재해석·변형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포괄적 경향과 함께 베를라헤가 근대 시대에 있어서의 다원주의적 경향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준다. 즉, 미래지향적 태도와 과거지향적 태도는 이제 어느 한 쪽도 다른 한 쪽을 누르고 주도적 위치를 정할 수 없으며, 두 가지 경향 모두가 다 존재 근거를 갖는 상호보완적 입장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두가지 경향의 상호보완적 특성이 베를라헤가 인식하고 있었던 전통의 의미이며 동시에 근대성의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이때 문제되는 것은 건축에서의 기본 해석방식이 아니고 결과물로서의 형태처리인 셈인 것이다. 아직 역사주의 양식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그것의 올바른 변형의 과정을 통한 근대적 해석을 시도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전통의 무조건적 비판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달은 선구안적 예상을 했던 것이다. 기본해석 방식은 늘 다양하게 존재하된 이 결과물에서는 이 방식이, 또 저 결과물에서는 저 방식이 주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판단기준은 처음부터 어느 한 쪽이 옳으냐가 아니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의도한 바가 어느 정도 구현되었느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올바른 근대성의 확립이란 이와 같은 결과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 후에나 가능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세대의 할 일은 이러한 결과물에 대한 검증작업이지 어느 것이 올바른 근대성인가에 대한 단정은 다음 세대가 할 일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은 베를라헤 혼자만이 하고 있었

18)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De plaats die de bouwkunst in de moderne aesthetica bekleedt" in *Bouwkundig Weekblad* (1886).

던 것은 아니었고 이미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의 주요 건축가들 사이에 폭 넓게 퍼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르누보 계열로 분류가 되는 비엔나 스쿨의 거장들이나 앙리 반데 벨데, 그리고 이태리의 초기 근대건축 상황 등이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진화하는 역사성'의 개념으로서의 초기 근대건축가들의 근대성 추구를 형태처리 관점에서만 본다면 '근대 절충주의(modern eclecticism)'라는 개념아래에 분류 될 수 있을 것이다. 알바 아알토(Alvar Aalto)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한 이 경향은, 그러나 이미 19세기말 에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시도되던 경향이었다. 이러한 '근대 절충주의'는 일종의 '박물관'적 개념의 다원주의 경향을 갖는 절충주의 해석방식이다. 즉 19세기의 역사절충주의가 과거지향이라는 한 방향 아래 이미 결정된 몇 가지 양식들 사이에서의 선택의 문제였다면 근대 절충주의는 여러 양식들에 속하는 다양한 역사적 건축부재의 변형을 통한 조합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변형·조합방식에 있어 신재료·신구조가 주요 모드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과거와 미래의 통합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베를라헤의 건축사상은 통시적 선상에서 어떤 한 양식의 형성을 추구하는 완결성을 갖지 못한다. 베를라헤의 건축사상이 갖는 의미는 모든 조건들 하에 얻어질 수 있는 최상의 해답을 추구한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시적 완결성'이라 부를 수 있으며, 합리주의 해석방식의 하나인 조건과 결과 사이의 최고의 논리적 타당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가장 근대적인 경향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측면도 갖는 것이다. 또한 빼롤 이후 고전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낭만주의 사고의 한 유형이며, 통시적 선상에서의 역사적 절대성 부여에 반대한 점에서 베를라헤는 영원한 낭만주의자 일 수 있는 것이다. 고전건축의 절대성을 타파한다는 기치 아래 출발한 아방가르드 건축이 자기들 나름의 또 다른 절대성의 한계안에 갇혀 가는 것을 베를라헤는 일찍이 통찰하였던 것이다.

4. 결론

근대 건축에 대한 베를라헤의 기여는 앞서 설명된 극심한 격변기 때에 보여준 포괄적 경향이며, 그의 한계는 자기시대의 이상적 모델을 한 가지로 보여주지 못한데에 있다. 베를라헤의 한계상황 인식이 옳았다는 것은 베를라헤가 자기 다음 세대에게 기대했던 근대건축의 이상적 모델이 반세기가 훨씬 더 지난 탈 근대 건축시대에 뒤늦게 추구되기 시작했다는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쌓이기 시작한 초기 근대건축에 대한 엄청난 양의 연구업적 가운데 베를라헤는 분명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베를라헤가 자기주관을 지니지 못한 초기 근대건축의 방랑자였는지 아니면 다음세대의 역할을 기대할 만큼 시대상황의 한계를 직시한 역사가 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몫인 것이다.

-BIBLIOGRAPHY-

-Primary Sources-

1. Hendrik Petrus Berlage, "Ⅱ Posto dell'architettura nell'estica moderne" in Bouwkundig Weekbald (1888)
2. Hendrik Petrus Berlage, "Gottfried Semper" in Architectura (1903)
3. Hendrik Petrus Berlage, Gedanken uber Stil in der Baukunst (Leipzig, 1905).
4. Hendrik Petrus Berlage, "Sull'achitettura moderna" in Zeitschrift des Osterreichisches Ingenieur —— und Architekten —— Vereines (1911).
5. Hendrik Petrus Berlage, Schoonheid in Samenleving (1842).
6. G. W. F. Hegel, Vorlesungen uber die Asthetik (1842).
7. Gottride Semper, Theorie des Formell —— Schonen (1849).
8. Viollet —— le —— Duc, "Le question de l'architecture moderne" in L'Eclectisme Raisonne, choix de texts et preface de Bruno Foucart (Paris : Denoel, 1984).
9. Vitruvius,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Secondary Sources-

13. Pol Abraham, Viollet —— le —— Duc et le Rationalisme Medieval (Paris : Vincent, Freal & C., 1934).
14. J. A Bennett, The mathematical science of Christopher Wren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15. Leon Bopp, Philosophie de L'Art ou Alchimie contre Historie, Essai de surhistoire des valeures esthetiques (Paris : Gallimard, 1954).
16. Philippe Boudon et Philippe Deshayes, Viollet —— le —— Duc, le Dictionnaire d; architecture (Bruxelles : Pierre Mardaga, 1979).
10. Disegni Tekeningen : Hendrik Peturs Berlage, Biennale di Venezia1986 (Amsterdam, Nederlands : Rijksdienst Beeldende Kunst, 1986).
11. Giovanni Fanelli, "Unity within Diversity, The Architecture of Berlage" in Hendrik Petrus Berlage, comlete works (New York : Rizzoli, 1988).
17. Philippe Junod, Transparence et Opacite (Lausanne : Editions L'Age D'Homme, 1976).
18. Richard Padovan, "Holland —— Building towards an Ideal : Progressive architecture in Holland" in Art Nouveau Architecture (New York : Arch Cape Press, 1979).
19. Joseph Rykwert, The First Moderns, the architects of the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MA. : The MIT Press, 1987).
20. Remy G. Saisselin, "Bienseance or Decorum" in The Rule of Reason and the Ruses of the Heart (Cleveland, Ohio : The Press of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70).

12. Pieter Singelenberg, H.P. Berlage : Idea and Style (The Hague, Netherlands : N.V. Drukkerij Trio, 1972).
21. Herman van Bergeijk, Hendrik Petrus Berlage, Architettura urbanistica estetica (bologna, Italy : Zanichelli Editore, 1985).
22. 임 석재, "19세기 건축과 독일 이상주의 자연철학 —— Semper의 양식 발달론과 자연해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3년 6월호) : pp. 49-57.
23. Seockjae YIM, "Architectural Propriety and Noble Simplicity" in Imitation and Ideal Type : a study of eighteenth century french architecture, PH.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2) : pp. 126-136.

The Meaning of Modernity and the Role of Tradition in the Modern Movements of Architecture

— A Study of Berlage's 'Evolving Historicity' —

Yim, Seock Jae
(Ehwa Wom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Berlage's importance in the history of the Modern Movements of Architecture lies in his effort to combine several sets of contradictory dual aspects of architectural values. Tradition and modernity are one of the contradictory dual aspects. For Berlage, tradtion and modernity were not tow opposing, but reconciliatory concepts. In this sense, Berlage thought that modernity did not mean a total rejection, but a reinterpretion of tradition. Berlage's concern with his contemporaty architectural situstion was how to revive the stagnant repetion of past styles in Historicism and, at same time, how to prevent an extreme rejection of tradition by the Avant-Gardists. Berlage's architectural belief that neither stagnant imitation of past styles nor extreme revolution can be an ideal model for his era, lies in a traditional art theory of 'style evolution' and the interpertation of Nature's lessons for i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Berlage's concept of 'style evolution' and the meaning of tradition and modernity in the early Modern Movements of Architecture.